

신권의 맹세와 성약을 더 깊이 이해한다

영으로 성결하게 됨으로써 몸이 새로워짐(33절 참조)

제일회장단의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에 관해 이렇게 설명했다.



저는 제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성취된 그러한 약속을 보았습니다. 저의 한 친구는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그가 봉사하는 동안, 매일 하루를 마치면서, 자신이 과연 또 다른 하루를 견딜 힘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2층의 침실로 가는 계단을 겨우 오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면 그는 힘과 용기가 회복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회복된 복음에 대해 간증하기 위해 일어설 때마다 새로워진 것처럼 보이는 연세 많은 선지자들의 삶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지닌 신권의 봉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분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신앙과 신권에 속한 맹세와 성약”,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62쪽)

충실하여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을 얻음(33절 참조)

충실하여 “이 두 신권”(교리와 성약 84:33)을 얻는다는 것은 아론 및 멜기세덱 신권의 의식을 받고 이와 관련된 성약을 충실하게 지킴으로써 오는 권능과 축복을 얻는 것을 포함한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사람이 신권의 충만함을 얻으려면 “모든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집에서 집행되는 모든 의식에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쳤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419쪽)

남성의 경우, 이는 신권을 받고 신권 직분에 성임되는 것 역시 포함된다.

우리의 부름을 영화롭게 함(33절)

교리와 성약 58:27~28; 107:99~100

부름을 받고 주님의 구원 사업에 참여할 기회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우리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일할 때, 우리는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 영감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침서를 갖고 있으며, 그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게다가 생각하고, 창조적이며, 개인의 재능을 사용하게 하는 실질적인 기회가 그 지침서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라는 지시는 그것을 미화하고 복잡하게 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혁신이 반드시 확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단순화를 의미합니다. (엠 러셀 벨라드, “오 지혜로우라”,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18쪽)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38절 참조)

교리와 성약 76:55~60; 81:6